

## 2024학년도 2학기 글말교실 소감문



(내 글쓰기는 현재진행형)

이름	김지희
전공	기업경영학부
학번	20222946
참여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1-on-1코칭 (담당교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글말특강 (-회차)

이번 글말교실 글말특강 7회차 수업을 듣고,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무엇을 적어야 할지 막막했지만, 떠오르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약 2년 전, 저는 1학년 1학기 때 김남혁 교수님의 글쓰기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의 수업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고, 이후 글말교실 특강에서 다시 한번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싶어 일부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도 몰랐던 신입생이었지만, 강의를 통해 목차 작성에서부터 서론, 본론, 결론에 이르기까지 글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수업에서는 ‘인식적 글쓰기’를 주로 다루며 글을 통해 사고를 정리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그 덕분에 대학 생활 동안 보고서를 작성할 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교수님께 배운 인용 방식, 참고문헌 작성법 등은 지금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은 글을 썼을 때도 많았지만, 노력 끝에 나아지는 제 모습과 결과물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 정말 감사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이번 특강의 주제는 ‘자유연상적 글쓰기의 효용’이었습니다. 기존에 제가 배워왔던 목적 중심의 글쓰기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어서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특강의 초반에서, 교수님께서 던지신 질문, “요즘 나에게 주된 글쓰기는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학교 과제나 회사 보고서를 떠올렸지만, 교수님은 텍스트 메시지, SNS 포스팅 등도 우리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글쓰기의 일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글쓰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왔던 글쓰기는 목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자유연상적 글쓰기를 통해 목적 없이도 글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마치 글쓰기 자체를 일종의 해방된 사고의 과정으로 느끼게 해주는 경험이었습니다.

최근 저는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고, 일상을 기록하고 싶다는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블로그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제 글을 본다는 생각에 처음의 즐거움은 줄어들었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은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Freewriting을 활용하여 블로그에 저만의 솔직한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블로그를 쓰는 방식을 넘어 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표현 능력을 계발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글쓰기의 해방감을 통해 다시 한번 글쓰기에 대한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남혁 교수님의 가르침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제 글쓰기 여정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글쓰기의 다양한 방식을 경험하며 저만의 글쓰기 세계를 넓혀가고 싶습니다.